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 연구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김 혜 선(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신수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결혼 전에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은 각각 자신의 결혼 준비정도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그 자체로도 결혼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의 결혼 후 만 1-3년 사이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2001년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 문항 구성은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관계, 문항 제외 시 α 값, χ^2 검증과 Cramer's V계수 확인을 통하여 그 양호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는 구성 및 기준관련 타당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척도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양호도에서 선별된 61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4개 문항이 전체 변량의 42.0%를 설명해 주는 7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혼준비도 척도의 기준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안정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모든 요인은 결혼안정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혼준비도 척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1로써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각 하위 요인별로도 .63에서 .88의 범위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결혼준비도 정도를 측정하는데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여러 과정을 통한 문항 손실로 54개 문항이 최종 선택되었는데, 이러한 문항 수는 결혼준비도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적다는 점이다. 둘째, 결혼 전에 측정되어야 하는 결혼준비도 척도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미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도 척도를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결혼준비도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결혼준비 차원에서의 상담이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